



## 에이드 크비르 (큰 명절)

11월 둘째주에 이 나라의 큰 명절이 있었습니다. 라마단이 끝난 후 70일이 되는 날, 이 날은 '에이드 아다하'라고 희생재물을 바치는 날로 해석되는데 성경 속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아들 이삭을 바친 순종의 사건에 유래하나, 아랍인들은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라고 믿는다 합니다. 왕부터 가난한 사람들까지 모두 이날엔 양을 잡고 첫날은 내장, 둘째날부터는 고기를 먹습니다. 이 날은 모든 상점이 문을 닫고, 대체로 학교와 회사들은 일주일 남짓, 긴 휴가를 보냅니다. 그래서 멀리 살던 가족들도 고향으로 오고, 온 가족이 모여 즐겁기는 하지만 양을 사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속상한 날이고, 일거리가 넘치는 여인들에게는 피곤한 날들입니다.



이 날은, 아침 남자들이 기도를 하러 나갔다 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양을 잡는데, 양을 도살하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꺼내는 것(사진 위)까지 다 손수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전문적으로 양잡는 사람을 부르기도 합니다. 저희 가정도 올해엔 현지인 가정에 초대를 받아 그 과정을 지켜보고, 내장을 맛볼 수 있었는데... (심장과 간을 내장의 기름 막으로 둘러 꼬치로 만들어 굽는 것, 사진 밑) 재미있는 문화체험이 되었지요. 동네 공터에서 젊은이들이 돈을 받고 양 머리를 구워주는 데 그 냄새, 에이드의 냄새가 한동안 자욱합니다.

### 일상 속에서

매일의 생활 속에서 은연 중에 느끼던 것들이 확실해 지는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 팀에서 함께 읽기로 한 책에서, 현지인들의 "불신" 문화에 대해 읽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가족 공동체가 강한 반면, 자신이 내 편이라고 느끼는 사람 "와스타(아랍어로)-내 가족, 친척, 친구" 이외에는 철저히 외면하는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 가게들은 와스타 가격과 현지인, 외국인 가격이 있다하니, 가족도 친구도 없는 외국인인 저희는 참.. 당하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얼마전 한 외국인이 뒷차가 부딪혀 사고를 당했는데 현장을 본 현지경찰이 현지인의 편을 드는 바람에 억울한 일을 당한 일도 있답니다....

와스타 외에는 누구도 믿지 말라고 듣고 자라온 이 사람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일은 현지 그리스도인들 모임에서 나타납니다. 현지인들의 경우,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ㅎㅎ로 모이기가 어려운 것이 나를 돕는 ㅎㅎ사와 만나는 것은 괜찮지만 잘 모르는 현지인들을 만나 서로 믿고 나눔을 하는 건 어렵습니다. 물론 ㅎㅎ사에게도 깊은 신뢰란 어려운 숙제입니다. 현지인들에게 느끼는 또하나의 어려움, 거짓말!! 이들은 갈등을 만들고 싫어하지 않아 거짓말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터라 양육하는 현지인들이 하는 말을 다 믿을 수 없으니 신뢰를 가르치고 보여주어야 할 입장에서 참으로 힘들다 합니다. 이들이 그 틀을 깨고 참 신뢰를 경험하도록 기억해주세요.

### 감사한 마음

- 조이의 다리가 나아 안정적인 일상으로 잘 복귀하였습니다.
- 루이의 숙제도우미를 구해 학교 생활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 조이와 허니는 언어학원과 튜터를 통해 언어공부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 허니의 친정아버지는 항암치료를 마치고 정기적인 검사를 받고 계십니다.

## 학교생활

1학년 학부모 설명회가 있어 갔다가 교실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학년에 한 반인 작은 학교라지만 교실의 아이 의자에 실제로 앉아보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의자가 붙어있는 책상, 교실 뒤쪽의 창문과 가방이나 외투를 거는 고리들 외엔 벽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사진 속 루이가 앉아있는 바로 앞에 칠판과 사진을 찍은 제가 있는 곳이 바로 문입니다. 숨막히는 이 곳이 아이가 하루를 보내는 교실의 전부



입니다. 붙어 시간에만 붙어를 배우고, 그 외의 모든 교과는 아랍어로, 그것도 교과서는 정통아랍어로, 설명은 현지 아랍어로 하고 있어 사실, 루이는 선생님이 수업중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거의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초반에 놀리고 때리는 녀석이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신경써주셔서 유일한 동양아이라서 받는 스트레스도 많이 줄었습니다. 함께 마음모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치원생인 애니는 붙어로만 수업을 합니다. 점심시간 후엔 무조건 낮잠을 자는데 만 4살이 넘는 아이들 중엔 애니처럼 낮잠을 안자는 아이들도 많아서 사실 그시간은 선생님께 거의 혼나는 시간이라고 해요. 얼마전엔 “나는 선생님께 매일 혼만 나는 아이”라고 해서 많이 속상했는데, 그게 보통이라고 하더라구요. 너무나 속상했는데, 매일 밤 기도시간에 루이, 애니는 학교와 선생님, 다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부모는 아니지만 가장 좋은 아버지께 구하며 말기며 감사하며 지냅니다. 함께 응원해주세요.

## 소식

1. 루이의 숙제 도우미 누나를 구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현지어를 가르치는 경험이 많은 누나 (새댁)인데 붙어와, 주로 아랍어 숙제를 봐줍니다. 일주일에 4번, 한시간 이상 하는데도 숙제가 어찌나 많은지... 얼마전 첫 시험기간이 있었는데, 10점 만점에 6점, 참 쉽지 않지만 이제 아랍어 책을 읽는 것은 많이 쉬워졌다 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해요.

2. 12월 5일로 끝나는 첫 학생비자를 끝내고 두번째 해의 학생비자를 신청합니다. 경찰서에 2번 다녀왔는데 속히 무사히 접수하여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내년의 사업 비자를 위해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2년의 언어, 적응 기간을 보낸 F도시를 떠나 사역과 관련하여서 새로운 도시로 이동할 생각도 하고 있어서 아버지께서 저희의 사역과, 아이들의 학교생활에 모두 적합한 그곳으로 인도해주시기를 손모으고 있습니다.

3. 장애인 사역을 위해서는 현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많은 기관, 센터들을 둘러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F도시의 한 센터에서 매주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다른 도시의 일꾼이 운영하는 한 곳을 다녀왔습니다. 차차로 여러 지역을 둘러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운영체계들을 배우고 앞으로 저희가 해나가야 할 사역에 도움이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계속 기억해주세요.

## 손을 모아서

- 가족 모두 학생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정으로 잘 지어져 가기를
- 아이들의 학교생활과 건강을 위해
- 회사 팀원들과 좋은 관계를 위해서
- 좋은 친구가 될 현지인 가정을 연결해 주시기를
- 비자연장(12월 초). 내년 사역을 위해 인도해주시기를 계속 기억해주세요.